

# 뽕뽕 언 지갑...백화점 '세일의 굴욕'

## 최장·파격 할인에도 전년보다 매출 하락 이상기후 등 악재...의류군 20% 이상 ↓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불황 타격을 위해 역대 최장 기간 세일인 '뽕뽕' 수준의 파격적인 할인행사까지 내세우고 있지만 매출성적표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은 눈물을 머금고 평소 세일을 하지 않던 유명브랜드까지 참여시키는 등 30여일 동안 사은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동원했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 백화점들은 남은 세일 기간(7일)동안 총력전

을 펼쳐 매출 신장에 나설 계획이지만 매출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난달 29일부터 24일째 진행 중인 여름 정기세일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3%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기세일(6월24~7월10일)기간과 비교했을 경우 매출 하락폭(6.3%)은 더욱 커졌다. 상품별로 효자품목인 의류 매출 하

락세가 두드러졌다. 여름 휴가를 대비한 의류 소비를 기대했지만 여성의류(수입·부티크·캐리커캐주얼) 매출이 15.7%나 추락했으며 남성복과 아동복 매출도 각각 27.5%, 25.0% 줄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침체와 가품·장마·폭염 등 예측하기 힘든 날씨 등이 역대 최장세일을 무색케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본격적인 휴가철과 캠핑 열풍 등으로 스포츠 상품군의 매출은 28.5%나 증가했으며, 화장품과 생활용품 매출도 14.4%, 17.2%씩 늘었다.

또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기획력으로 골프 상품군의 매출(16.3%)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여름 정기세

일(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중반기 매출실적이 지난해 여름 정기세일 기간보다 5% 하락했다.

상품군별로는 여성의류 매출이 6% 감소해 하락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아웃도어 60%, 화장품 12%, 패션잡화 16%, 스포츠 11% 등 상품군이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여 한 자릿수 하락세를 지켰다.

또 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스마트 TV를 중심으로 한 가전·가정 상품군도 매출(2%)이 소폭 증가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세일 기간이 길어 매출 분산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내수침체와 급변하는 날씨 등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의류 상품군 매출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물 속에서도 끄떡 없어요” 24일 광주신세계 패셔스트리트(이마트 지하 1층) 크로스 매장서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물에 젖지 않는 젤리백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 '불황의 그림자'...5만원권 위폐 567% 급증

경기 침체가 가시화할 올해 상반기에 위조지폐가 줄었지만 오만원권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총 4534장의 위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5153장과 비교하면 619장(12%)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 2297장이 발견된 만원권 위폐는 1796장으로 501장(21.8%) 줄었다. 적발된 5000원권 위폐도 같은 기간 304장(10.9%) 감소한 2479장이다. 1000원권은 39장 발견돼 작년과 비슷했다. 그러나 최고액권인 오만원짜리

위폐는 많이 증가했다. 오만원권 위폐는 220장으로 지난해 상반기 33장보다 187장(566.7%)이나 늘었다. 오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 이후 가장 많다.

상반기 위폐 금액은 414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백80만원 증가

했다. 위폐 장수가 줄었음에도 액면가가 높은 5만원이 급증해 전체 액수가 커진 것이다.

시중에 나돈 지폐 1백만장 당 위폐 발견 장수는 1.2장으로 지난해 상반기 1.3장보다 소폭 감소했다.

\*/연합뉴스

## '폭풍전야' 제2금융권

### 가계대출 증가폭 은행권 3배...연체율 치솟아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부채대란'의 도화선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체율 상승률은 제1금융권인 은행권 상승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더구나 올해 제2금융권 부채가 급증 추세여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24일 금융권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대출자 중 30일 이상 연체자의 비율은 지난해 1월 4.5%에서 올해 5월 5.6%로 뛰어 올랐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더 심각하다. 캐피탈사는 6.1%에서 8.2%로, 저축은행은 12.2%에서 14.9%로 각각 2%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상호금융사도 3.7%에서 4.1%로 상승했다.

시중은행은 2.2%에서 2.3%로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한 결과 제2금융권 가계빚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455조9000억원에서 올해 5월 456조7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83조7000억원에서 186조원으로 2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이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이들 대출자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이다.

물가 급등과 실질소득 감소, 자영업 경쟁 격화 등으로 이들의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 돈줄 말라가는 中企

### 고금리에 대출 어려워 한계기업 속출 우려

대내외 경기불안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경기가 빠르게 악화될 경우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56조3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보다 0.8% 증가한 액수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대출 잔액은 578조7236억원에서 600조8890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기업 대출 잔액 증가율의 5분의 1 정도 밖에 안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은행 대출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난해 조달한 외부 자금에서 은행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3.3%에 달했다. 이는 회사채(3.2%)나 주식(1.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주원인으로는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꼽힌다.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상반기 월 평균 6%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의 7.81%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월 평균 대출금리는 5%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1980년 가동 중단...LG에 매각

###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4)

#### 나주 호남비료 유치 도민운동 ⑨

### '한강의 기적' 도화선·중화학 육성 모델 '의미'

#### ▲나주호남비료와 제3공화국

나주호남비료는 제3공화국과 함께 시작됐고 종말도 함께 했다. 그 시작에는 3공화국 핵심인물인 김재규가 있고 종말에도 그가 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5·16 직후 과도기적인 급박한 상황에서도 군사정부의 산업관련 입법 제1호를 공포한다.

그런데 이 법률은 거시적 경제 개발계획도 아니고 국토계획도 아니다. 그것은 한 지방 부실기업인 나주 호남질소비료주식회사 인수에 관한 법률이다.

박 의장은 왜 나주호비 건설을 군사정부 출범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을까. 그것은 증산과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근대화와 공업입국이라는 정책목표 때문이다. 그리고 비료공장이야말로 농촌 소득 증대와 근대화에 직결된 산업일 뿐 아니라 장치공업으로써 중화학공업과 직결돼 있다.

박 의장은 이같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나주호비를 인수하자마자 측근 중에서 핵심인 심복 김재규 육군준장을 초대 사장으로

#### 내려보낸다.

김재규는 박 의장의 동향 후배일 뿐만 아니라 육사 2기 동기로서 5·16주체세력들에 의해 반대세력으로 몰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명해준 것이 박 의장이다.

박 의장의 농촌근대화에 대한 열망은 뒤에 통일벼의 개발과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고 또 나주 호비의 화학공장건설에 대한 관심은 70년대 고도성장을 이끈 중화학공업의 발판이 됐다.

그러나 1979년 10월26일 제3공화국은 김재규에 의해 종언을 고쳤고 뒤이어 나주호비도 1980년 3월 22일 가동이 중단된으로써 사실상 제3공화국과 운명을 같이 했다.

#### ▲LG에 분리 매각

무엇보다 나주호비는 5·16정권 산업관련 입법 제1호로 시작됐다는 역사적 사실과 새마을운동과 중화학공업 입국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5·16정권의 경제개발을 위한 서독 차관과 광부 간호사의 인력 수출을 촉발시켰고 이것을 계기로 고속도로와 제철, 중화학공업 건

설 등 근대화를 이룩했으니 나주 호비아 말로 '한강의 기적' 발화점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1980년 3월 가동이 중단된 한국 종합화학공업(주) 나주공장은 그 뒤로도 옥탄올과 부탄올 등을 부분 생산했으나 경영부실이 누적되면서 결국 정부는 1984년 3월 나주공장을 분리 (주)럭키(LG의 전신)에 매각했다.

나주공장을 인수한 (주)럭키는 옥탄올과 프라스틱 가소제, 프라스틱 원료, 프라스틱 가공 등 공장을 수직적으로 결합 함으로써 종합화학 메이커로서의 생산체제를 갖추었으며 칠솔공장의 이설, 국내 최초의 아크릴 레이트 공장의 준공, 식품 포장제인 펄펄 생산 시설 설치 등 생산시설의 신설과 확충을 지속해오고 있다.

1995년 2월 24일에는 상호를 (주)엘지화학 나주공장으로 변경했다가 2001년 4월 이후 (주)엘지생활건강 나주공장으로 됐다.

<참조>나주군지(1980), '한국의 발전' 전라남도편 (뿌리깊은나무 1988), 전남도정(1969.2), 계간 광주주의(2007 여름호·가을호) -



위준 (연필)

한 여름 8월 평균기온 22.3℃  
겨울에는 눈축제

# (삿포로) - 대한항공 전세기 3회 취항

## 日本 北海道 ↔ 무안공항

새벽출발 저녁도착으로 알찬 스케줄 : 무안출발 : 05:00 / 삿포로 출발 : 22:30

8월 09일 3박4일 1,390,000~ (인천출국-무안귀국)

13일 2박3일 1,290,000~ (무안공항왕복)

16일 3박4일 1,650,000~ (무안공항왕복)

문의 및 접수 : 호남권 여행사

昭和新山(소와신잔)은昭和(일본의 연호)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산? 1944년 6월, 한마디로 어느날 자고일어나 밖을 보니 보리밭과 소나무 숲이던 곳이 산(402m)이 되어 지금도 자라나고 있으며, 현재는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